

'노동참여 산업전환'과 '공동결정법 입법투쟁'을 맞이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각오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사계절도, 삼한사온도, 5월의 푸른 하늘도 어디로 다 사라졌습니다. 과학의 잣대를 대지 않아도 지구가 병을 앓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임을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기후위기가 부정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굳어갈수록 우리의 산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생산하는 방식, 생산물을 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산업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역장벽 대신 환경장벽이 등장하고, 생산물과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지고 도태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산업을 완전히 새 모습으로 바뀌는 전환은 지금 재벌·대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독점을 걱정하기는커녕 자금과 정책을 대기업에 몰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제성과를 정치인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속셈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재벌이 독주하는 산업전환은 희생과 파괴를 부릅니다. 이 나라에서 경제의 격변은 항상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IMF 때처럼 국가경제가 무너지면 대가는 노동자가 치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산업전환은 언제나 그렇듯 노동자의 희생, 하청기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파괴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산업전환을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산업 재편이 재벌에게 기회가, 민중에게 재앙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던 때처럼, 독점자본의 탄압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던 때처럼, 총파업 전선을 온몸으로 떠받치던 그때처럼, 우리 금속노동자가 다시 나섭시다.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과 생산을 지킬 '산업전환협약'을 쟁취합시다. 투쟁하지 않는데 자본이 내놓을 리 없습니다. 금속노조의 푸른 깃발로 현장을 뒤덮어 버립시다.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을 배제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우쳐 줍시다.

기업의 벽, 복수노조의 뒷을 깨버리고 진짜 산별노조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10년을 싸울 수 있어도 단 한 번의 항복도 있을 수 없다는 의지로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고, 노동자가 산업전환의 주인공임을 자본가의 머릿속에 우리의 투쟁으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읍시다.

그래서 산업전환은 자본가의 금고가 아니라 이 땅 모든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전환이고, 재벌총수 일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전환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참여 산업전환'은 19만 금속노조를 건설한 조합원 동지가 나서야 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는 산별노조를 지킨 금속노동자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투쟁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자본가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투쟁 하나를 더합니다. 노동자의 운명을 자본가에게 맡기지 않고 현장의 민주주의를 노동의 손으로 지키는 법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법을 금속노동자가 국회로 보낼 것입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확보 노조법' 개정 10만 입법운동(국민동의청원)을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반드시 성사합시다. 자본가의 돈으로 얼룩진 정치를 노동계급의 정치로 뒤집겠다고 선언합시다. 발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로 보낸 법안 통과를 위해 산별노조가 국회를 뒤흔드는 투쟁으로 2021년의 여름과 가을을 채웁시다.

우리의 인사는 '투쟁'이고 약속은 '승리'입니다. 투쟁!

2021년 6월 23일

경기지부장 정구양, 경남지부장 홍지욱, 경주지부장 최재소, 광주전남지부장 정준현, 대구지부장 윤종화,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부산양산지부장 문철상, 서울지부장 박경선, 울산지부장 윤장혁, 인천지부장 두대선, 전북지부장 차덕현, 충남지부장 정용재, 포항지부장 황우찬, 기아자동차지부장 최종태, 만도지부장 신동진, 쌍용자동차지부장 김득중, 한국지엠지부장 김성갑, 현대자동차지부장 이상수, 현대중공업지부장 조경근, 수석부위원장 김용화, 부위원장 권수정, 부위원장 김동성, 부위원장 양기창, 부위원장 엄강민, 부위원장 엄교수, 부위원장 이승열, 부위원장 정주교, 사무처장 정원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 호 규

